

〈특 집 : 제주학의 과제와 방법〉
제주학 연구 방법론
문학을 중심으로

현길언¹⁾

I. 〈제주학〉이라는 개념은 가능한가.

제주학의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와 성찰은 그 동안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설사 그 문제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은 연구자들 독자적인 방법에 의해 연구를 계속해 왔고, 나름의 성과를 이루어 놓았다.

〈제주학〉이란 개념이 가능한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전에, 우선 제주에 대한 연구(제주학이라는 개념을 잠시 유보해 두고서) 경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에 대한 연구 경향은 크게 두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제주지역의 인간과 자연과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문제와 현상을 대상으로 제주의 고유한 문제와 관계없이 적절한 소재를 선택하고 주제를 찾아 연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연구에서 제주의 문제는 연구자의 연구내용을 확대하거나 심화시키는 한 방편이 될 뿐이고, 제주를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다. 둘째는 제주의 자연과 인간과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문제나 현상이 일반적인 연구와 달리 새로운 세

1)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계 현상을 도출하고 인식하는 독자적인 의미성을 얻기 위한 연구이다. 다시 말하면, 제주의 문제나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세계와 인간의 실체를 해명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제주학이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에 임하면서 구태여 제주학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마음 쓸 필요는 없다. 제주학의 정립 여부는 연구의 종합적 결과이지, 그것을 전제로 한 연구는 오히려 연구의 범위나 방법에서 한계를 자초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도 제주학의 정립에 대한 기대나 그 가능성을 갖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연구의 진지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제주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많은 성과도 얻었다. 이렇게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제주학의 성립에 대한 확신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제주의 자연과 인간과 사회와 그 인간들이 만들어 내었던 역사가 넓은 의미의 한국의 중심부와는 상당한 변별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변별성이 단순한 중심부의 부속성에서 벗어나 그 자체가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 현상과 진실을 설명하는 하나의 단서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에 대한 연구는 지역학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학문 세계를 구축하는 수준에 이를 것이고, 그 경우에 제주학의 의미도 제고될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은 학맥이나 학파적 성격과도 다르다. 제주학이 단순 지역학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은, 제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독자적인 의미성을 갖고 세계 현상과 인간의 진실을 해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경우이다.

II. <제주문학>의 개념은 가능한가.

제주문학이란 개념은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의 문학을 말할 때에 다소 형식적이긴 하지만, 문학 주체로서의 작가와 독자, 작품의 대상으로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언어의 문제가 그 조건이 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한다면, 제주작가에 의해서 제주 사람들이 향유하는, 제주에서 제주언어로 쓰여진 작품이라야 제주문학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한국문학에서 다시 제주문학, 경상문학, 부산문학 하는 식으로 지역 중심의 하위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무리이고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²⁾

그런데 굳이 <제주문학>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는 것은, 제주를 소재로 하고 제주 작가가 쓴 작품에서, 한국문학의 일반성과는 다른 독특한 양식적 특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³⁾ 즉 제주문학을 독립적인 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은, 제주의 특이한 역사성과 문화와 그것을 반영한 문학작품이 보유하고 있는 문학성이 문학의 본질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제주는 탐라부족 국가로서 독자적인 문화를 지녀 왔지만, 13세기부터 중앙 정부의 한 부속 도서로서 중앙에 귀속되어 차츰 중앙 정부에 동화되어 왔다. 그래도 제주가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한국의 중심부와는 다른 점을 유지하고 있어서, 제주문화 또는 제주문학으로 독자적인 개념 설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주문학은 한국문학의 하위 개념이면서, 동시에 일반적인 한국문학에서 추구할 수 없는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 이제 그 독자성, 즉 제주적인 것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주문학의 개념 설정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왕조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탱되어 온 본토와는 달리 이질적인 문화를 이

2)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지역 중심의 명칭을 쓰고 있지만, 그것은 그 지역 문학을 지칭하는 형식적인 개념 명칭이지, 그 지역 문학 나름의 어떤 특수성에서 근거한 명칭은 아니다.

3) 제주문학의 개념 설정에 대한 논의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제주문학의 정립>이란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가졌고, 여기에서 발표 논의한 내용은 <탐라문화>. 15(제주대학 탐라문화연구소 1995)에 수록되어 있다.

루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제주문학의 개념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문학 주체적인 면에서도, 제주 사람들의 삶 속에는 조선조 문화의 기반이 되었던 왕조이데올로기와 맞서는 요소가 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무속신앙이 제주 사람들의 삶의 근원에 깊이 뿌리내렸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무속신앙은 왕조이데올로기의 기반인 유교적 세계관과는 상반된다.

둘째, 제주 사람들의 의식도 왕조 이데올로기인 유교 중심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토의 문화는 상당 부분 양반문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에 반하여, 제주 중심 문화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성과 문화 속에서 살아온 제주 사람들이 인식한 세계와 삶의 내용은 육지부와 다를 수밖에 없으며, 문학도 한국문학의 큰 흐름에서 부분적으로 이탈한 특이한 양식적 특질을 낳게 되었다.

근대 이후 제주는 주변적 정치 상황 속에서 역사가 전개되었다는 것도 따져 보면 지극히 문학적이다. 세계사의 변두리 지역에서 소외된 인간의 삶의 실상을 제주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역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문학의 방향성을 시사해 준다.

해방 전후의 역사적 상황에서도, 본토와 제주는 봉건왕조시대 제주가 처했던 역사적 상황과 비슷했다. 이 점에서 제주문학의 특질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문학 주체자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설화작품이나 민요에 나타난 미학적 양식과 그 의미가 중심부 육지와는 특이한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근대 이전부터 제주의 독자성이 확보되어 있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근거해서, 제주문학의 개념을 구축해 주는 여러 요소를 구비전승 양식인 설화에서부터, 최근 문학 작품에 이르기까지 두루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근거에 의지해서 제주문학이라는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작품들을 선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비전승되어온 유동문학에서 제주민요를 들 수 있다. 특히 노동요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제주민요는 제주 사람들의 삶과 그 역사와 문화를 형상화했을 뿐만 아니라, 민요로서의 특이한 양식적 특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주민요>라는 독자적인 양식 설정이 가

능하다. 둘째, 제주 무속 본풀이를 비롯한 신화와 전설이다. 무속 신앙과 관계 깊은 무신들의 일생담인 본풀이는 육지부 설화와는 다른 특이한 양식적 특질을 보유하고 있다. 또 전설도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는 현대시와 소설 작품 중에 그 일부가 해당된다. 구비전승 문학은 제주 사람들의 문화와 삶을 반영하면서 독특한 양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육지부의 민요나 설화와 다르다. 그러나 현대문학 작품에서는 제주문학 작품으로 특별하게 변별성을 갖는 작품은 많지 않다. 변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구비문학처럼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의에서는 제주문학으로서의 변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주변성' 개념으로 잠정적으로 설정하고 싶다. 이 주변성은 정치경제학적인 개념과는 다르다.⁴⁾ 중심부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정하면 주변성을 드러낸 작품을 제주문학의 범주 속에 포함할 수 있다.

Ⅲ. <제주문학>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⁵⁾

<제주문학>에 대한 논의가 한국문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해, 나아가서 문학의 본질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성찰을 위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 논의가 혹 지역주의 편향, 또는 혹은 지역 이기주의나 그 자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소지

4) 이 개념은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위성부와 중심부 사이의 종속 관계를 전제로 하여, 저발전 국가가 거대한 중심부 국가의 경제 팽창에 완전히 종속되어 통합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의 개념은 보다 포괄적이고 문화적이다. 중심부에 대한 종속의 개념보다는 차별의 개념이 보다 강하다. 이 개념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다음을 참조할 것. 현길연, 제주도 연구, 7집(제주도연구회 1990), p. 309

5) 제주문협에서 주최한 <광복 50년, 제주문학 50년> 주제로 개최한(1995년) 문학세미나에서 필자는 <한국문학과 제주문학>이라는 주제로 이 문제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제주문학> 28집, pp. 230-240

는 없을까? 어쩌면 어떤 목적을 위해 낡은 이념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만들 우려는 없을까. 6) 물론 지역주의나 지역의 현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문학의 소중한 몫으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학 연구나 창작은 문학의 본질성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제주문학>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한국 문학과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러한 결론의 근거는 무엇인가. 첫째 제주문학이 지니는 '주변성'인데, 이것은 문학의 본질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제주 설화는 제주 사람들의 세계관과 제주 문화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것은 제주문화의 근원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해 준다. 예를 들면, 토착문화와 외래문화가 어우러져 새로운 문화를 이루는 과정을 설명한 설화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문헌에 개재된 삼성신화와 무속신의 일생담인 당신본풀이에서는 그 점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삼성신화에서는 두 문화의 만남을 화해적으로 처리되었으나, 본풀이에서는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충돌을 숨기지 않았다.⁷⁾ 이 점은 문학이 지배이데올로기와는 다른 편에 있음을 증명한다. 즉 중심부적이 아니라, 주변부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설화에서 나타난 고종달형 설화에서도 중앙정부와 상대되는 제주 사람들 모습이 나타나고, 무속본풀이의 신들도 모두 중앙에서 쫓겨왔다는 사실에서 제주설화의 주변성을 잘 드러나고 있다. 이것

6)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 '제주정신'이라는 생경한 이데올로기의 알리바이를 위해서 구전문학의 내용을 많이 차용했던 일이 있다. 이것을 위한 문학의 연구나 창작은 비문학적이다. 혹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학행위는 아니다.

7) 삼성신화에서는 외래에서 오곡 씨를 갖고 온 처녀들과 탐라국에 살면서 사냥으로 생활하던 三神이 서로 결혼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녕계네깃당 본풀이에서는, 남쪽 나라에서 온 여자 배주또마누라와 사냥하던 소천국은 서로 뜻이 안 맞아 싸워서 갈등을 일으킨다. 이 외에도 제주설화는 사람 사는 삶의 현장성을 중시해서 작품화했다. 현용준, 제주무속사전, (신구문화사 1980), p. 630 이하.

은 문학의 반이데올로기성과 상통하면서 그 본질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문학의 비실용성, 또는 반이데올로기성은, 그것이 삶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非 이념적이며, 非 효용적이고, 非 도덕적이다. 경우에 따라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예외이고, 문학의 본령에 빗나간 경우이다. 그러므로 문학은 행복한 시대에 사는 행복한 사람들에 의해 향유되지 않았다. 인간의 불완전함과 고통스러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극복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문학은 항상 당대의 중심 가치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플라톤의 공화국에서 시인을 추방한 사례나, 동양 문화권의 중심부에서 소설을 경시했던 소설관에서 잘 나타나 있다. 문학 창작의 힘이 되는 상상력은 그 사회의 중심 가치를 숭상하는 그룹에서는 극히 경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혹 어느 특정한 시기에 정치성을 띤 문학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극히 예외이고 비문학적이다.

문학의 주변성은 서사문학의 속성을 설명하는 단서가 된다. 조선 조 소설에 비해서, 비극적인 세계관을 형상화한 전설의 구조를 통해서도 그 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현대소설의 인물형이 거의 반영웅적이라는 점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심부에서 이탈되어 특이한 역사와 문화를 이루어 놓은 문학이 주변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데서 <제주문학>이라는 개념 설정도 가능하다. 그러기에 제주문학에 대한 연구나 논의는 문학의 본질성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데 의미를 더해 줄 것이다.

문학의 본질 중에 주변성은, 중심부에서 이탈된 세계관을 통해서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탐구하고 인식한 결과를 형상화하는 것으로서, 보다 정직하게 세계를 인식하는 하나의 틀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주변성이 문학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단서가 된다. 그렇다면, 제주문학이 지니고 있는 주변성은,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왕조시대 중심부 문학에 맞서 진정한 의미의 문학의 자리를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이 주변성이 문학의 본질을 이

루는 요소가 되어, 제주문학을 살찌게 했음은 틀림없다. 그 다음 제주문학의 요건으로는, 작품의 중심을 이루는 요소가 제주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과 정서를 형상화시키면서, 제주문화의 특질을 설명해야 한다. 이 점에서 육지부 문학과 변별성을 지녀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은, 제주민요와 신화를 포함한 제주설화, 그리고 해방 이후 제주의 역사적 상황을 형상화한 문학작품들이다. 그리고 섬이라는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을 형상화한 시와 소설도 포함될 수 있다. 섬의 문화성은 주변적 문화성과 통합으로, 문학의 한 측면을 생각하게 하는 단서가 된다.

이러한 범위에서, 제주문학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그 결과가 한국문학에 부과될 수 있는 의미망을 찾게 될 것이고, 다음으로 문학의 본질성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더해 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문학은 연구할 가치가 있다.

IV. <제주문학>은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그 동안 제주문학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계속되었고, 그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에 이르고 있다.⁸⁾ 구비문학의 경우, 자료 수집 정리 단계를 거쳐 지금은 그 해석과 응용 이론 수립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대문학 작품도 그 동안 많이 발표되었다. 자료 정리 단계에서도 아마추어로서의 민요 사설이나 설화의 사건과 내용을 중심으로 한 조사에서, 구비문학 작품의 속성을 다치지 않도록 수집 정리해 놓았다. 그래서 후학들이 연구하는데 기초가 마련되어 있다.⁹⁾

8) 제주문학 연구에 대한 논저 목록을 보면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한문학과 무속무가 분야, 구비문학 분야로 나누어 저서와 논문 목록이 정리되어 있다. 이 목록이 간행된 이후에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제주도지 편찬위원회, 제주도지, 3권, (제주도청 1993), pp. 378-399

9) 이 단계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은 다음과 같다.

* 진성기의 많은 수집 업적과,

이러한 자료 정리 단계를 거쳐, 그 동안 작품 해석과 그 미적 구조와 세계관을 파악하는 성과를 얻었고, 개별 작품들의 문학성을 천착하게 되어, 10) 타 분야의 문제를 해석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제주문학 연구는 개별적인 연구자의 세계관과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열린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 그만큼 제주문학은 그 구조면에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구비문학 자료로서의 고유한 성격을 고려해서, 한 작품에 대한 원형을 상정하는 이본 연구가 필요하다. 서사무가와 설화는 구전자와 채록자, 채록한 시기와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르다. 그 차이가 구비문학의 속성이라고 해도, 여러 이본들¹¹⁾간의 관계를 고찰해서, 그 각 이본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논의를 정리해야 한다. 현지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 혼란이 없도록, 중요한 각 자료에 대해서는 그 성격과 의미를 밝혀 두어야 한다.

* 김영돈, 제주민요연구, 일조각, 1965.

* 현용준,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김영돈·현용준, 현길언, 제주설화집성, 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 김영돈·현용준, 한국구비문학대계.9-1.9-2.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년 이후 3개년)

* 그리고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에서 매년 제주지역 마을 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구비문학 자료를 정리해 놓았다.

- 10) 김영돈과 현용준의 민요와 당신본풀이와 설화에 대한 연구 업적이 팔목하다. 이들의 지도를 받은 좌혜경 문무병 현송환은 제주민요와 설화에 대해 학위논문을 썼다. 이 외에도 제주무속에 대한 연구논문은 많으나 문학 연구분야에서 논의할 수 없어 보류한다. 제주 구비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로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김영돈, 제주의 민요, 신아문화사, 1993.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현길언, 제주도장수설화, 흥성사, 1982.

- 11) 현재 수집해서 각각 다르게 채록으로 남긴 경우에 각각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고유한 작품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본으로 처리하는 것이 연구를 위해 필요하겠다. 이 경우에 채록자의 이름을 따서 혹은 기록된 문헌을 따서 명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그 각각의 자료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면, 창세신화 중 하나인 <자청비> 설화는 여러 수집자에 의해 여러 양식으로 수집되어 정리되어 있고, 그 표제 명칭도 다양하다. 또한 제주 여러 지역에 널리 전해져 있는 <고종달 설화>도 현재 여러 문헌에 정착되어 있는데, 그 상황을 밝히고, 그 각 이본의 차이를 정리해서 원형에 가까운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민요인 경우에도, 한 종류의 민요를 모아서 하나의 작품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그 전체를 한 작품으로 전제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제주문학의 양식적 특질을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제주적인 특질을 보유하고 있는 유형을 찾아내고 그 구조의 특질을 파악, 개별적인 작품 연구를 통해서, 그 논리성을 찾을 때에, 독자적인 양식으로 제주민요, 제주신화, 제주전설, 제주소설이 자리잡을 수 있다. 이는 비단 양식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식을 통해서 제주문학의 정체성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형식과 내용이라는 이분법적인 틀을 벗어나 미학이나 사회 역사적 조건 등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방법과 범위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제주문학은 제주 사람과 역사와 사회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독특한 양식을 낳았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그 연구가 제주 문화와 사람을 이해하는 기능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연구되어야 한다. 문학은 다른 제도 양식보다 당대의 사회적 진실을 정직하게 드러낸다. 그러므로 문학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제주 역사와 문화와 인간의 면모를 탐색할 수 있다. 제주문화 형성을 설화와 민요가 설명하고 있고, 제주 사람들의 세계관도 그러한 작품에 반영되어 있으며, 과거 제주의 구체적인 풍속도 문학이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주 사람의 삶을 형상화시킨 작품을 연구함으로써 제주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는 제주문학의 연구를 통해서 문학의 본질성을 논의할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이 문제는 문학의 양식적 특징과 역사 사회적 상황과, 작품과 관련된 다른 예술 양식(무속 본풀이 경우에는 굿)

이나 작업(노동요의 경우는 작업의 현장성)과의 관계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작품과 인접한 여러 현상과의 관계성을 축으로 한 연구는 이미 많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그 실체를 밝히는데 관심을 두었다. 앞으로는 연구는 그 작품에 드러난 현상(혹은 문학성)을 다른 분야와 관련 지워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사실 해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관과 향유자의 비논리적이고 비이데올로기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단초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이르면, 문학이 인간을 탐구하는 구실을 충분히 해낼 것이다.

다섯째는, 이러한 연구의 총화가 제주문학의 특질을 밝혀내는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것은 곧 문학의 본질성을 풍부하게 해명하는 일이 되어 한국문학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섬문학, 바다문학의 본질성을 해명하는 일이다. 섬이나 바다는 문학의 중요한 모티브가 될 뿐 아니라, 그러한 지리적 조건과 관계된 문화양식은 문학의 본질성을 해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반도적 환경에서 바다는 열려진 새 세계로 향하는 가능성이면서 새로운 땅으로 뛰어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이것은 인간 역사의 이중성이면서 본질성이다. 바다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문학적이다. 섬 역시 그렇다. 그것은 육지 중심이 한국적 사유로서는 철저하게 소외된 주변적 공간이다. 섬에 대한 탐구는 주변성에 대한 탐구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바다와 섬에 대한 문학적 천착이 문학의 본질성을 추구하는 한 길이 될 것이다.

일곱째는 제주문학에 대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인간 이해와 탐구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그래서 깊은 심연 속에 들어앉아 있는 인문학적 상상력의 실체를 끄집어내어, 욕망의 충족이라는 기능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안목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타 학문의 경향을 극복해서, 세계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한 학문으로 전환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여기에서 제주문학 연구가 인문학 연구의 한 분야로 자리잡게 되고 다른 학문과의 연합으로 세계를 정직하게 인식하는 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¹²⁾

V. 연구 분야 및 내용 : 하나의 시안

제주문학의 각 장르별 작품에 대한 연구 분야 및 내용을 개괄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이 개별 작품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문학 작품 연구에 대한 어떤 방향을 가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 무속 본풀이

무속신의 본풀이에 대한 연구는 민속학적 방법, 종교학적 방법, 사회학적 신화학적 방법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앞으로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문예학적인 방법으로 종합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연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상정해 보았다.

- ① 이본 연구
- ② 본풀이 양식의 문학적 특성에 대한 장르론적 연구
- ③ 전기적 양식으로서의 무속신의 일생담과 조선조 소설과의 대비
- ④ 무속신의 일생담의 사회 역사적인 의미와 주변부적 삶의 양식

-
- 12) 본인은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의 물과 바다의 문제를 논의하는 두 번의 심포지엄에서, '물'과 '바다'에 대한 인문학적 인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물'과 '바다'를 자원으로만 인식하는 자연과학의 효용주의적 발상과는 달리 그것을 독자적인 생명체로서의 '자연'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다. 이런 논의의 기회를 통해서 다른 학문분야끼리 하나의 문제에 대한 상치한 입장을 성찰할 수 있고, 그것은 세계와 인간을 학문적으로 정직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⑤ 모티브
- ⑥ 신화적 상상력
- ⑦ 서술양식 : 신화 양식으로서의 리얼리티성
- ⑧ 서사구조
- ⑨ 언어
- ⑩ 기법
- ⑪ 세계관

2. 민요

민요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정신 연구, 민요의 장르적 성격에 의한 연구, 사회 역사 풍속사적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음에 제시한 것 중에는 이미 연구했던 부분도 많다.

- ① 이본 연구
- ② 개별 양식¹³⁾별 연구
- ③ 수사와 이미지
- ④ 민요적 상상력
- ⑤ 민요 현장성
- ⑥ 사회 역사성
- ⑦ 민속학적 연구
- ⑧ 제주민요의 장르론 정립

3. 설화

그 동안 설화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제주의 문화와 역사,

13) 개별 양식이란 개념은 한 종의 민요를 말함. 예를 들면, 해녀 노래, 아기 재우는 노래 등등.

풍습과 제도를 설화를 통해서 이해했고, 본토와 대비해서 그 특질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것을 문학작품으로 그 한계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 ① 이본 연구
- ② 모티브 연구
- ③ 제주설화의 장르적 성격
- ④ 주변적 속성
- ⑤ 일생담적 서사 구조
- ⑥ 사회 역사적 연구
- ⑦ 설화 구조
- ⑧ 서사 기교: 신화적 속성과 리얼리티성
- ⑨ 본토 설화와의 비교
- ⑩ 섬 문학성
- ⑪ 다른 주변적 지역 설화와의 비교
- ⑫ 세계관

4. 현대문학 작품

현대에 와서 쓰여진 작품에 대한 연구는 제주지역 문화의 한 장르로서 문학 작품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대부분 일반 문학연구의 한계 내에서였다. 그러나 제주문학이라는 범주에서 연구할 경우에는 문제는 달라진다. 여기에서 문제는 상당히 애매하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는 일반적인 작품론과 작가론, 제주지역의 문화의 실상을 정리하는 문학사적 연구 등 일반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제주문학이라는 전제를 두고 연구할 경우에는, 개별 작품들이 제주의 역사 문화 사회적 상황과 속성을 얼마나 잘 구조적으로 수용해서 형상화시켰는가를 탐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상정해 보았다.

- ① 주변부성

- ② 섬 문학성
- ③ 해양성
- ④ 역사, 사회성
- ⑤ 제주문학의 특성
- ⑥ 구조
- ⑦ 제주적인 모티브

VI. 정 리

1. 제주학과 제주문학 연구

제주문학 연구는 제주학에 기여해야 한다. 제주학의 의미는 학문의 통합화를 도모함으로 학문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도모하는데 있다. 근대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학문을 실용성을 중시했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욕망 충족을 도모하려는 효용성에 경도되어 있다. 학문은 궁극적으로 세계와 인간, 그 인간이 이루어 놓은 역사와 사회의 실체를 탐구하는 것이다. 즉 자아와 세계를 이해하는 일의 하나이다. 곁에 드러나는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조사하고 실험으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과 우주와 역사와 사회에 내재해 있는 어떤 질서를 찾아내는 일이다. 그것은 밖에 드러난 것도 있고, 아주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것도 있다.

학문의 결과는 그 주체자와 그 주체자가 살고 있는 사회와 그 사회의 욕구와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그러나 그렇게 탐색된 결과(지식)는 한시적인 의미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연과 인간은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하고 복잡한 구조로 짜여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적인 사유로 천착한 것은 그 중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그것은 쓸모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학문 연구의 결과로 지식이 팽창하고, 그것으로 인간의 욕망 충족

조건은 점차 개선되었다. 그 결과 사람의 생활을 편리해졌다. 그러나 그 대신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자연과 사회의 실상을 쉽게 파악하게 되었으나 인간에 대한 무지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인간들끼리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과 정보와 지식이 발달하는 것은 서로 반비례하고 있다. 그것은 욕망을 충족함에 따라 점점 그 욕구가 증대되기 때문에, 인간은 점점 불가사의한 존재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문학이 채워야 세계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순수 인문과학이 필요한 소이가 있다. 그 중에 문학은 인간의 진실을 탐구하는 가장 완벽한 양식이기 때문에, 제주문학에 대한 진지한 연구는 제주도학의 균형 유지에 기여할 것이다.

제주 문제와 그 현상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공자들이 서로 연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문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려는 무의식적 욕구의 발로이다. 그것은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이다. 그런데 문학은 반 이데올로기적이고, 그 이데올로기에 경도되는 것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학문의 연합은 피차 학문의 벽을 허물고 서로 이해하며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제주문학 연구는 제주학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주학의 특성은 주변성에 대한 탐구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지리적 조건으로 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 역사적 조건에서 그렇다. 주변적 특성은 적어도 도서성과 주변적 공간에 대한 정직한 탐색에서 가능하다. 그러한 예로, 제주설화 문학에 나타난 주변적 성격을 논의한 글의 개략을 소개하고 결론을 맺겠다.

2. 주변성과 제주설화¹⁴⁾

14)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탐라문화> 15호에 게재된 논문을 참조할 것.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중심되는 내용만을 다시 소개하겠음. 현길언, 설화

제주설화가 제주문학의 독특한 한 장르로서 자리를 차지하려면, 그 외형적인 조건도 구비해야 하겠지만, 그 구조적 의미가 제주의 역사 문화성과 호응되어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제주설화에서 주변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첫째, 제주설화는 제주문화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조선의 중심부에서 이탈된 제주 역사와 중심부 가치에 대응하는 제주 사람들의 의식과 삶은 독자적인 제주문화를 형성했는데, 그 문화의 중핵은 반이데올로기성, 반 왕조성에 근거하고 있다. 이 점이 설화의 분석적 이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는 주변인의 신앙으로서 무속신의 일생은 반 지배이데올로기성에 근거하고 있다.

제주문화의 기층에 자리잡고 있는 무속신앙의 문화적인 특징은 반이데올로기성에 있다. 무속신은 모두 육지에서 쫓겨온 신이다. 그들은 제주 사람과 공생관계에서 있는 인간적인 신이다. 이러한 점은 전설(김녕뱀굴전설, 광정당 전설)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셋째, 제주의 단막 풍수설화는 주변적 삶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큰 인물이 날 만한 지맥을 외래 힘에 의해서 모두 단절됨으로 제주에는 큰 인물이 날 수 없어 결국 불모의 땅이 되었다는 이 설화에서는 주변적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시사 받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종달형 설화이다. 넷째는, 비범한 사람의 일생담인 설화는 주변부 사람의 꿈과 그 좌절을 형상화시키고 있다. 특히 아기장수 설화는 육지부 그것과 판이하게 다른 구조인데, 그것은 왕조이데올로기를 거역하면서도 현실에 타협해서 살아가는 주변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탐구한다. 다섯째, 이러한 무속 본풀이와 설화는 전형적인 주변인 제주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치열하게 형상화하였다. 이 주변적 삶의 양식은 제주 구비 전승되는 문학의 특질이면서, 제주 설화나 본풀이가 타 지역과 다른 양식적 특질이기도 하다.@